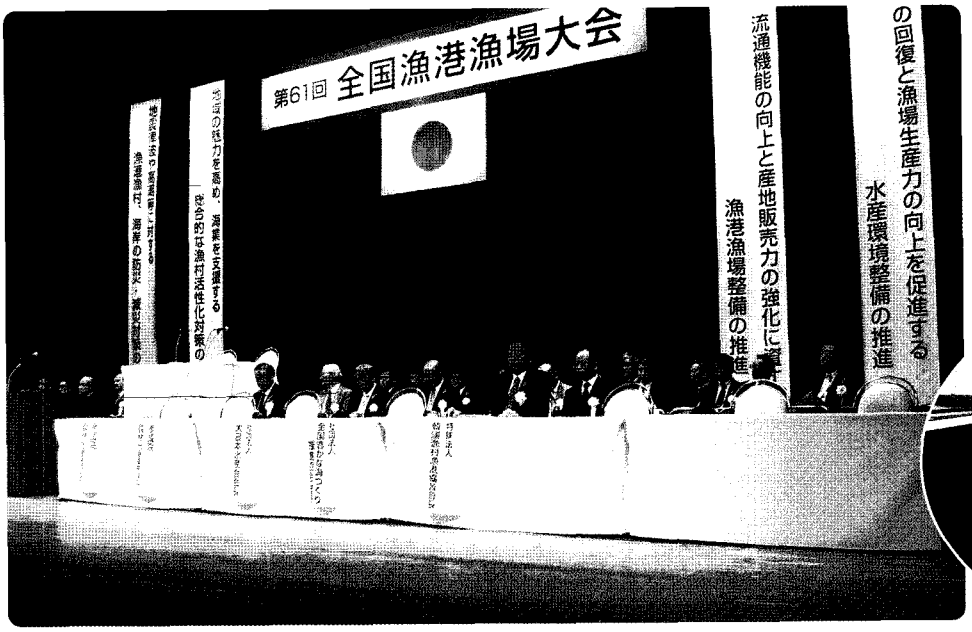
수산자원의 증대와 어장의 생산력 향상을 촉구

한국어촌어항협회 심호진 회장, 일본 전국어항어장대회 초청 참석



▼ 시라이 도시히데 미우라시 수산과장의 안내로 미사키어항 관련 시설 등을 둘러보고 있는 심호진 회장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는 지난 10월 15일 일본 동경도 미나토구 메르파르크 홀에서 제61회 전국어항어장대회를 개최했다.

귀빈자격으로 참석한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은 이날 중·참의원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대일본수산회장, 전국풍요로운바다만들기추진협회 회장 그리고 각 현의 관계자 약 1,300여명이 참석한 대회장에서 어촌어항어장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결집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양국 어촌어항어장 관계자들과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대회에서 일본 어촌어항어장 관계자들은「어항어장정비장기계획 및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해안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전국 어촌어항어장 관계자들의 총의를 모으자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장생산력의 향상을 촉진하는 수산환경정비의 추진

△ 생산·유통기능의 향상과 산지판매력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어항어장정비의 추진

△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해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어촌활성화대책의 추진

△ 지진해일과 고조 등에 대한 어항 어촌, 해안의 방재·감재대책의 강화

등을 세부 실천 과제로 선정했다.

심호진 회장은 대회 전일(14일) 가나가와현 미사키(三崎)어항을 방문, 시라이 도시히데(白井敏秀) 미우라(三浦)시 수산과장의 안내로 어항을 중심으로 어시장, 피셔리나워프 우라리(수산물 직판센터), 피셔리나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신안군 및 부안군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완료

– 2개지역 총 212톤 수거처리 –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신안군 및 부안군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을 지난 9월 30일과 10월 21일 각각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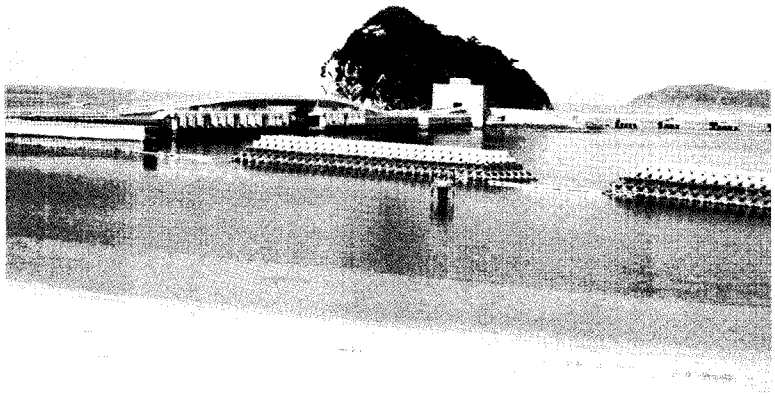
총사업비 약 5억이 소요된 이번 사업들은 신안군 연근해 270㏊의 면적에서 50.8톤의 침적폐기물과 부안군 연근해 3,200㏊에서 161.88톤의 침적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이번 사업으로 어업환경개선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안군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제23차 해외어촌어항어장조사단 파견

해외 선진 어업기반시설을 직접 시찰



▲ 나가사키현 하에도마리어항

한국어촌어항협회는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9박 10일간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어업기반시설 및 수산식품의 생산 · 유통 · 가공에 관한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제23차 해외어촌어항어장조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시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시 · 도, 시 · 군의 어촌어항어장 관계자를 비롯하여 시공 · 용역업체, 기타 어촌어항어장에 관심이 있는 16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올해 파견된 제23차 해외어촌어항어장조사단은 우리의 어촌어항과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와이타(脇田)어항, 나가사키현 하에도마리(南風泊)어항, 도비시마(飛島)낚시공원 등을 시찰하였다. 이후 유럽으로 이동하여 이탈리아의 피우미치노항, 쏘렌토항과 함께 프랑스의 르아브르항, 디에프항, 국립바다센타 Nausicaa를 둘러보았으며, 칼레항을 경유하여 영국의 람스게이트항, 런던 국립해양박물관, 도크랜드 등을 시찰하였다.

이번 시찰단은 일본을 비롯한 어업선진국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선진 어촌 · 어항에 대한 견문을 넓혀 연안의 자원증대와 어항의 유효이용에 따른 어촌, 어항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로 간 자전거 탐사대

전국의 해안선 1만리(4천여km) 자전거 길로 이어진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15일 자전거 기행작가, 라이더가 참가하는 탐사팀을 구성, 서해안의 강화도에서 출발, 2개월간 연륙교가 있는 섬을 포함하여 전국 해안선을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코스를 개발하는 자전거 탐사팀 발단식을 가졌다.

이번 자전거 탐사대는 우리나라 어촌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를 널리 알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자전거 타기의 대중화를 위하여 해안선을 잇는 코스 개발을 목적으로 자전거로 달리기 좋은 해안 길을 중점 안내함과 동시에 코스 내에 있는 어촌체험마을, 아름다운 어촌 100선, 주요 어항 및 어촌관광단지 등을 직접 방문, 어촌어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수산자원들을 발굴하게 된다.

개발되는 코스는 해양관광 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 사이트와 주요 자전거 전문 포털사이트(bike.donga.com)를 통해 탐사진행 상황을 중계할 예정이며 코스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12월에는 책자로 발간하여 시중에 보급하게 된다.